

‘高3 애로’ 외면하는 대학... 10곳 중 1곳만 대입전형 변경

전형계획 변경 대학, 200곳 중 20곳
최저학력·전형기간 조정 등 골자
대학 자체 대입전형변경 사례 48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학사일정에 차질을 빚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위한 대입 전형 계획 변경 대학이 총 200여개 대학 중 20여 곳에 그쳤다. 재외국민·외국인 전형 자격기준 사항 변경, 학생부종합전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최저학력 기준 완화, 정시 교과 외 영역 기준 적용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코로나 19 여파로 올해 대입에서 고3이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대학 20곳 신청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안 22건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대학 협의기구인 대교협은 대학들의 대입 전형 변경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지난 3일 기준으로 대교협이 코로나 19 관련 2021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한 대학은 총 20곳으로 승인 건수는 22건이다. 주요 변경 사항은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승인사항〉

전형유형	주요내용	대학수	대학명
재외국민과 외국인	어학능력 등 자격기준 충족에 관련된 사항 변경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전형 변경사항 포함)	14	경남대, 경성대, 고려대(서울), 대구한의대, 덕성여대, 동국대(경주), 목포해양대, 선문대, 성균관대, 중부대, 치의과학대, 충남대, 케이씨대, 한경대
학생부종합	재학생만 지원 가능한 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1	서울대(지역균형선발)
수능위주	교과 외 영역 기준 적용 폐지	1	서울대
실기/실적	특기자전형의 대회실적 인정기간 변경	2	경기대, 계명대
	전형기간 조정	4	고려대(서울), 유원대, 인천대, 청주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어학능력 등의 자격기준 변경(14건) ▲지원자 풀의 변화가 없는 전형에 한해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수능위주전형에서 교과 외 영역 반영 폐지 ▲각종 대회(시험) 미개최·연기 등으로 인한 실적 인정기간 변경 ▲면접, 실기, 논술 등 대학별고사 전형기간 조정 등이다. 서울대는 학종에서 고교별로 2명까

지 지원이 가능한 지역균형선발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했다. 인문, 자연계열 기준으로 기존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에서 2등급 이내를 받아야 했다. 변경 후에는 3개 영역 이상에서 각 3등급을 받으면 된다. 또한, 정시 수능위주 전형에서 교과 외 영역 기준 적용을 폐지해 출결·봉사·교과이수기준 항목을 충족하

지 못해 감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고려대와 덕성여대, 성균관대, 충남대 등 14곳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에서 어학능력 등 자격기준을 반영하지 않는 등 자격 충족 관련 사항을 변경했다.

경기대와 계명대는 축구 등 운동 특기자전형 등을 위해 실기·실적 전형에서 대회실적 인정기간을 연장했으며 고려대, 유원대, 인천대, 청주대 등 4곳은 올해 대입 전형 기간을 각각 조정했다.

대교협 승인을 따로 거치지 않고 대입전형 운영을 변경한 사례는 48건으로 총 24개 대학이 실시한다. 비대면 면접 전환이나 서류 정성평가 등 평가 운영 방식을 바꾸는 것은 대교협 승인 없이도 학교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경기대,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 17개교가 학종 서류평가에서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와 이화여대는 학종 면접을 비대면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재외국민·

외국인 전형의 면접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로 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순천향대, 연세대, 한국외대 등 11곳이다. 부산대와 연세대는 이 전형의 실기를 비대면으로 치른다.

중앙대와 한국외대 등 5곳은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출결이나 봉사시간 등 비교과 영역 정량 반영기준을 변경했다. 실기·실적 전형에서는 건국대, 경희대, 중앙대 등 4곳이 비교과 정량 반영기준을 변경했다.

대교협은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대입전형변경사항을 심의·조정해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 진행될 수시 대학별고사 운영을 위해 교육부와 지속해 방역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대교협은 “코로나 19로 수험생 배려가 필요하거나 전형방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대입 전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입 안정성을 유지하고 전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했다”면서 “수험생은 원서접수 전 대학별 모집요강과 공지사항을 통해 지원대학의 대입전형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카이스트, 차세대 퀀텀닷 LED 핵심 기술 개발

정연식·전덕영 교수 공동 연구팀
퀀텀닷 배열 해상도 1만4000ppi 구현
초 저압 전자 프린팅 방법 세계최초 개발

KAIST는 신소재공학과 정연식 교수·전덕영 명예교수 공동 연구팀이 차세대 퀀텀닷 LED(QLED) 기반 디스플레이 실현에 핵심적인 기술인 풀 컬러(적·녹·청) 퀀텀닷 패터닝 프린팅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퀀텀닷이란 별도의 장치가 없어도 크기와 전압에 따라 스스로 다양한 빛을 내는 수 나노미터(1 나노미터는 100만분의 1 밀리미터) 크기의 반도체



정연식 교수



전덕영 교수

입자다.

연구팀은 풀 컬러 퀀텀닷 배열의 해상도를 최대 1만4000ppi(인치당 픽셀 수)까지 구현하는데 성공했다. 이 해상도는 현재 8K 디스플레이의 해상도인 117ppi 보다 약 100배 이상에 달한다.

〈풀 컬러 퀀텀닷 패터닝 프린팅〉

연구팀은 또 기존 퀀텀닷 나노 패터닝 방법과는 원리가 다른 초 저압 전자 프린팅 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패터닝의 해상도와 프린팅 수율 및 퀀텀닷 발광소자 성능을 극대화하는데도 성공했다.

KAIST 신소재공학과 남태원 박사 과정이 제1 저자로, 김무현 박사과정 등이 제2 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6월 16일자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미래소재 디스커버리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한용수 기자 hys@

건국대 산학협력단

BRIDGE+ 사업 2단계 선정

건국대 산학협력단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사업’(이하 BRIDGE+ 사업) 2단계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건국대는 매년 약 10억 2000만원씩 3년간 총 30억 60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의 BRIDGE+ 사업은 대학 내 창의적 자산 실용화를 넘은 출연연, 병원 등 다양한 기관 간 융·복합 기술 고도화를 통해 기업 맞춤형 중대형 기술이전·사업화를 추진한다. 또한, 대학이 보유한 혁신적 지식의 융·복합 및 이전·사업화 촉진에 따른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성장동력 확보 및 대학의 사회적 기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현진 기자

세종대, ARWU 호텔관광학 분야 세계 9위

54개 평가분야 중 14개 분야 순위권

세종대가 중국의 상해교통대학 고등교육원이 발표한 ‘2020 세계대학 학술순위(ARWU)’에서 호텔관광학 분야 세계 9위에 올랐다.

ARWU 세계대학 학술순위는 QS 세계대학 평가, THE 세계대학 평가와 더불어 3대 대학 평가로 손꼽힌다. 주관적 평가 요소를 배제한 정량적 지표로 대학을 평가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ARWU 세계대학 학술순위는 ▲졸업생 중 노벨상, 필즈상 수상자 수(10%) ▲교원 중 노벨상, 필즈상 수상자 수(20%) ▲인용횟수 상위 연구자 수(20%) ▲Nature, Science 게재 논문 수(20%) ▲과학인용색인(SCIE), 사회과학인용색인(SSCI)에 게재된 논문 수



세종대 전경

(20%) ▲개인당 학문적성취도(10%) 등 정량 지표로 순위를 매기고 있다.

세종대는 이번 순위에서 총 54개 평가분야 중 14개 분야가 순위권에 올랐다. 이 중 10개 분야는 국내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호텔관광학 분야에서 세계 9위로 국내 1위, 수자원공학은 세계 101~150위권으로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순위권에 올랐다.

/이현진 기자

방사청, 수리부속 계약 ‘착수·중도금’ 지급 확대

영세 업체 부담감 해소 기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6일 무기체계 수리부속 계약의 ‘착수금·중도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금·중도금 지급 대상 확대는 방산물자가 아닌 일반물자로 분류된 수리부품에 대해서는 선금만 지급해 오던 차이를 줄여, 영세 업체의 부담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그동안 무기체계에 대한 수리부속품이라도 방산물자 수리부속품은 착·중도금을 지급하였던 반면, 일반물자 수리부속품은 선금만을 지급했다.

‘착수금·중도금’은 선금금의 한 종류로서 조달계약 체결 시 초기 원재료 구입비 등 계약이행을 위한 자금을 선금 대비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선금은 예산의 70%까지, 착수금·중도금은 예산의 최대 100%까지 지급된다.

/문형철 기자 captinn@

방사청은 앞으로 조달 계획 수립 시 군에서 필수적인 수리부속으로 조달요구된 경우 일반물자도 착수금·중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착수금·중도금’ 대상 확대를 통해 수리부속품 계약 업체의 대다수인 영세 중소기업이 체가 이행 초기 자금 부담을 덜게 된다.

방사청에 따르면 선금만을 지급받던 일반물자 수리부속 납품업체는 기존 대비 연평균 약 453억 원 확대된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확대조치로 방사청은 중소기업의 자금검색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철 방사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최근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에 착수금·중도금 지급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계약이행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문화예술계 최초 드라이브 인 공연

현대무용 ‘김나이 무브먼트 콜렉티브’

성균관대에서 최초로 드라이브 인(drive-in) 문화예술 공연이 열린다.

성균관대는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매일 저녁 8시 성균관대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야외 주차장에서 김나이 무용학과 교수가 ‘13인의 아해가 도로를 질주하오(사진)’라는 주제로 현대무용 공연 ‘김나이 무브먼트 콜렉티브(NKMC)’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문화예술계에서는 최초로 드라이브 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관객



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소통을 추구하기 위해 기획됐다.

작품인 ‘13인의 아해가 도로를 질주하오’는 이상의 ‘오감도: 시제1호’를

바탕으로 공포와 절망뿐이었던 1930년대 식민지 시대의 삶을 현대화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고 불안해하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골목길 ‘아해들’을 통해 그려낸다.

/이현진 기자